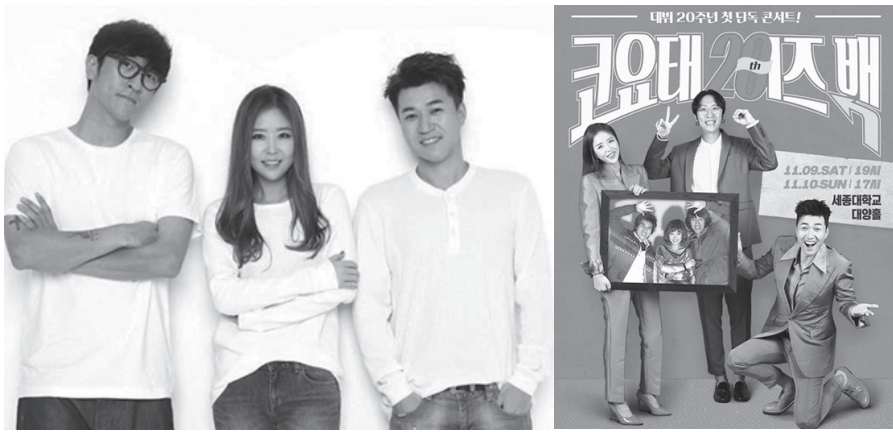


## 코요태,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

혼성그룹 코요태 (김종민, 백가, 신지) RK 오는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주년 단독 콘서트 '코요태 20th 이즈백'을 열고 관객들과 만난다. 데뷔 20년 만에 여는 단독 콘서트이다.



지난 1998년 정규 1집 '코요태'로 데뷔한 코요태는 20년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최장수 혼성그룹으로 남아 있다. 그간 '순정', '만남', '실연', '파란', '비몽' 등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을 달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지난 2월에는 20주년 기념앨범 '리본' (REbom)을 발매하기도 했다.

'코요태 20th 이즈백'은 코요태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자, 데뷔 후 처음으로 코요태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콘서트에서 코요태는 주옥같은 대표곡 무대들은 물론, 오직 콘서트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 중이다. 특히 코요태라는 이름으로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준 팬들을 위해 멤버들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영국밴드 '더 1975', 태극기 밟은 사진 논란

영국 밴드 '더 1975(The1975)'의 보컬 매튜 힐리가 태극기를 밟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한 더1975의 보컬 매튜 힐리는 대기실로 보이는 곳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극기에 검은 부츠를 신은 왼발을 올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태극기에는 'THE 1975 Live in Seoul'과 밴드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힐리는 이 사진을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이 사진을 본 한국 팬들은 힐리를 비난하고 항의

했다. 한 팔로워가 "왜 태극기에 발을 올리고 있냐?"고 지적하자, 힐리는 "이건 내 깃발" (it's quite obviously my flag)이라고 답했다.

힐리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한국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힐리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 없이, 사진 삭제만 하고 떠나면 끝이냐?" 등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결성된 더 1975는 2016년 발표한 정규 2집 '아이 라이크 잇 웬 유 슬립, 포 유 아 소 뷰티풀 옛 소 언어웨어 오브 잇'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6일 세 번째 내한공연을 펼쳤다.

## 트와이스 컴백 'FANCY' 이후 5개월 만



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23일 미니 8집 타이틀곡 'Feel Special(필스페셜)'을 공개하며 컴백한다. 'Feel Special'은 트와이스가 지난 4월 발표한 미니 7집 'FANCY YOU'의 타이틀곡 'FANCY' 후 5개월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9일 트와이스 공식 SNS 채널에 트와이스 새 앨범 'Feel Special'의 개인 티저 영상 첫 주인공 나연의 모습을 공개하고 컴백을 알렸다. 이 영상에서 나연은 영롱하게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함께 스페셜한 미모의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5년 데뷔한 트와이스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출발한 월드투어 '2019 트와이스라이즈'는 북아메리카 지역을 비롯 세계 9개 지역에서 10회 공연을 성료했다.

최근에는 미니 6집 타이틀곡 '에스 오어 에스' 뮤직비디오가 2억 뷰를 넘어서며 2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9편 보유하게 됐다.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최근 '팬시'에 이르기까지 활동곡 11곡 모두 히트했다. 이번 '필스페셜'로 12연속 흥런 도전에 나선다. JYP의 수장이자 히트곡 메이커인 박진영이 작사, 작곡을 맡았다.

1281호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결혼 결정보다 먼저 궁합(宮合)이 맞는지 살펴야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작년의 어느 날 60대의 모친이 아들과 아들 여자 친구의 궁합을 문의하고자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궁합 감정을 의뢰하면서 자기 아들이 이미 여자 친구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일단 아들의 팔자(八字)에 드러난 배우자의 모양새와 배우자에 해당하는 운(運)의 흐름을 살펴보니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궁합이 맞는지 의뢰한 여자 친구의 팔자(八字)와 운(運)의 흐름을 볼 때 좋은 배우자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두 사람의 팔자(八字)를 보면서 모친에게 건넨 말은 "두 사람이 서로 견인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드님의 편에서 궁합 점수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면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타고난 사주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기운과 운(運)의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 친구의 사주(四柱)와 운(運)의 흐름을 볼 때에는 아드님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인연이 됩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이 처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아드님이 평생 병고(病苦)로 고생하게 되거나 배우자 인연에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친의 안색이 변하면서 묻는 말이 "우리 아들은 이미 이 아이와 꼭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궁합이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 간에 궁합(宮合)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자 쪽에서 먼저 저에게 아드님과 궁합이 맞는지 문의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드님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자가 타고난 팔자에 남편복이 박하므로 그래도 결혼이라도 한 번 해보고 아이라도 낳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드님의 모친께서 궁합이 맞는지 의뢰를 했기 아드님의 편에서 조언해 주는 입장이 되므로 이 처자는 아드님에게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지금은 아드님이 먼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 714.534.4645 |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